

공사비 부풀려 1억3천만원 편취

속초해경, 방파제 공사 건설사 대표·공무원 등 불구속 입건

관급 공사로 진행되는 방파제 보강공사를 하면서 재료비와 장비대 등을 부풀려 공금 1억3천여원을 편취한 건설사 대표와 공무원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가 발주한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에 실제 투입되지 않은 장비대와 재료비 등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 1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건설 대표 B씨(46세)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건설 대표 B씨는 속

초항만 방파제 보강공사를 낙찰받자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행된 장비대와 유류대의 세금계산서를 이번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것처럼 속여 정산했다. 또 공사의 주재료로 사용된 피복석이 실제 반입돼야 할 분량의 23%만 반입됐는데도 전량 반입된 것처럼 도급 정산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공무원(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도 공사현장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치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건설업자 B씨로 하여금 공사비를 수령케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속초해양경찰서는 “장비대 등을 부풀려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하는 행태가 건설업계 전반에 관행처럼 만연해 있으며, 이를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건설 관련 분야의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속초소방서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속초소방서(서장 최민철)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한화콘도, 더클래스 300 등 대형화재 취약 대상 방화관리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1분기 시민안전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소방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자율적 화재예방 및 방화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방법령에 대한 안내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가 끝난 뒤에는 연기대피 체험 등 화재에 대한 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믿음이엔지(ENG) 장학금 전달



믿음이엔지(ENG) (대표 정현욱)는 지난달 28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일금 삼백만원을 기탁했다.

고성군 새마을 지회 월례회

2012 새마을 추진 사업 계획 회의



고성군 새마을 지회(회장 이진명)는 지난달 24일 대진 금강산회관에서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2년 1분기 순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제 8대 고성군 새마을 지회 집행부 소개와 2012년 새마을 추진사업 계획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제8대 고성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신입회장으로는 하용준씨가, 고성군 새마을 부녀회 신입회장으로는 박준옥씨가 각각 선출돼 3년의 임기를 맡게 됐다.

구독 및 광고 문의 ☎033-681-1667

“동해안 중국어선 피해 예방 최선”

속초해경, 거진 앞바다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훈련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흥희)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부터 고성군 거진 남동방 7마일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인한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훈련을 실시했다.

속초해경의 이번 훈련은 매년 5~8월 동해안을 통해 북한해역으로 이동하는 중국어선들에 의해 우리 어민들의 어망 피해가 속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훈련을 통해 신속한 제압과 나포능력 등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속초해경 소속 500톤급 경비함정 등 6척과 동해지방해경청 소속 특공대, 항공단(펜더헬기 1대)이 참여해 가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포착하고 중국어선을 추적, 검색, 나포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지난달 28일 거진 남동방 7마일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인한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단속 훈련이 실시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특성에 맞는 불법 중국어선 감시와 단속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기자

학생들에게 안보현장 체험 기회 제공

육군 22사단, 2개 교육지청과 업무협약



지난달 27일 육군 제 22보병 조성직 사단장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정호남 교육장이 상호 교육기부강화를 위한 MOU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육군 제22보병사단은 지난달 26일과 27일 각각 고성교육지원청 및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장병들의 활기찬 군생활을 돕기 위한 상호 교육기부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주도하는 군(軍)과 학교가 대한민국 미래의 동량인 학생과 장병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

을 심어주고, 아울러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의 인성함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부대는 지역학생들이 생생한 안보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방견학과 병영체험, 안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특기장병들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활동도 더욱 활발히 전개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